

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(2026.10.22)

거시적 압박 속의 대분열: The Great Decoupling

유가발 인플레이 공포, 한·미 증시 탈동조화,
그리고 코스피 5,500선의 위기

[KOSPI] 낭떠러지에 선 국내 증시

↘ 4월 이후 최저치 경신 (5,533.77, -3.52%)

계단식 하락세 심화,
증시안정펀드 가동 여부 촉각



[FICC] 인플레이 재점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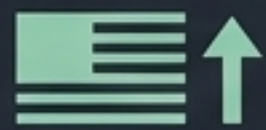
🛢️↑ WTI \$100 목전 (\$99.47)

📄↑ 미 국채 10년물 5% 안착 (5.10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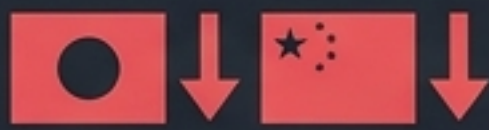


중동 리스크발 악순환

[Global] AI 조정론과 디커플링



나스닥
1.1% 상승



아시아(닛케이/항셡)
2~3%대 급락



완전히 따로 노는 한·미 증시

[Assets] 안전자산 쏠림



금 \$5,000 초읽기 (\$4,985)



비트코인 동반 강세 (\$67,350)



유동성의 극단적 회피 현상

공급 차질 우려 (원유)

WTI \$99.47 (+\$2.62) 

중동 리스크

자금 이동 (외환)

달러인덱스 하락 (0.5, -0.32)
원/달러 하락 (1,322.47원, -5.30)
유로 강세 속 달러 약세

인플레 공포 (금리)

미 국채 10Y 5.102% (+5bp)
FOMC 매파 기조와 유럽 국채시장 동반 흔들림

중동 긴장 고조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10년물 5% 안착을 견인하며,
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을 짓누르는 거시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‘리스크 오프’ 속의 이색 동조화

전통 안전자산의 귀환

금 (XAU)
\$4,985 (+\$18)



- \$5,000 돌파 초읽기,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극대화
- ※ 특이사항: 국제 금값 상승에도 불구하고, 국내 금시세는 나흘 연속 하락하는 디커플링 발생



신형 자산의 유동성 흡수

비트코인
\$67,350 (+\$1,240) 

- ETF 순유입 지속
- 유가·금리 상승의 공포장 속에서도 위험/안전 자산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기현상

글로벌 증시 탈동조화: The Great Decoupling

서구권: 방어와 호실적

미국: DOW 50,000.00 (+1.57%) - 기념비적 5만 선 돌파 / 나스닥 (+1.1%)

유럽: DAX 24,998 (+0.80%) / STOXX 50 (+0.62%)

동인: AI 호실적, 스페이스X 실적 기대,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

아시아: 기술주 투매 쇼크

한국: KOSPI (-3.52%) / KOSDAQ (-3.62%)

일본/홍콩: 닛케이 (-2.65%) / 항셍 (-3.03%)

동인: 유가 급등 압력, AI 투자 변동성 및 기술주 매도세 직격탄. 엔화 약세에도 수출주 방어 실패

예외: 독자 행보

중국/베트남: 상하이종합 (+0.45%), VN-지수 (+22pt)

동인: 빈그룹 및 에너지주 주도의 로컬 모멘텀 방어

글로벌 증시를 흔든 '네오클라우드 쇼크'

위기 (The Shock)



이슈: 네오클라우드 생사 기로



영향: AI 인프라 투자 심리 전반의 급랭.
한국 이어 중국 증시까지 약세장 진입 우려



결과: 한국 반도체 대장주 및 일본 IT 섹터의
연쇄 폭락 트리거 작동



구원 (The Catalyst)



액션: 엔비디아(NVIDIA), 네오클라우드에
230조 원 규모 파격 지원 발표

글로벌 증시를 흔든 네오클라우드 사태, 구원투수로 나선 엔비디아가 반전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을 것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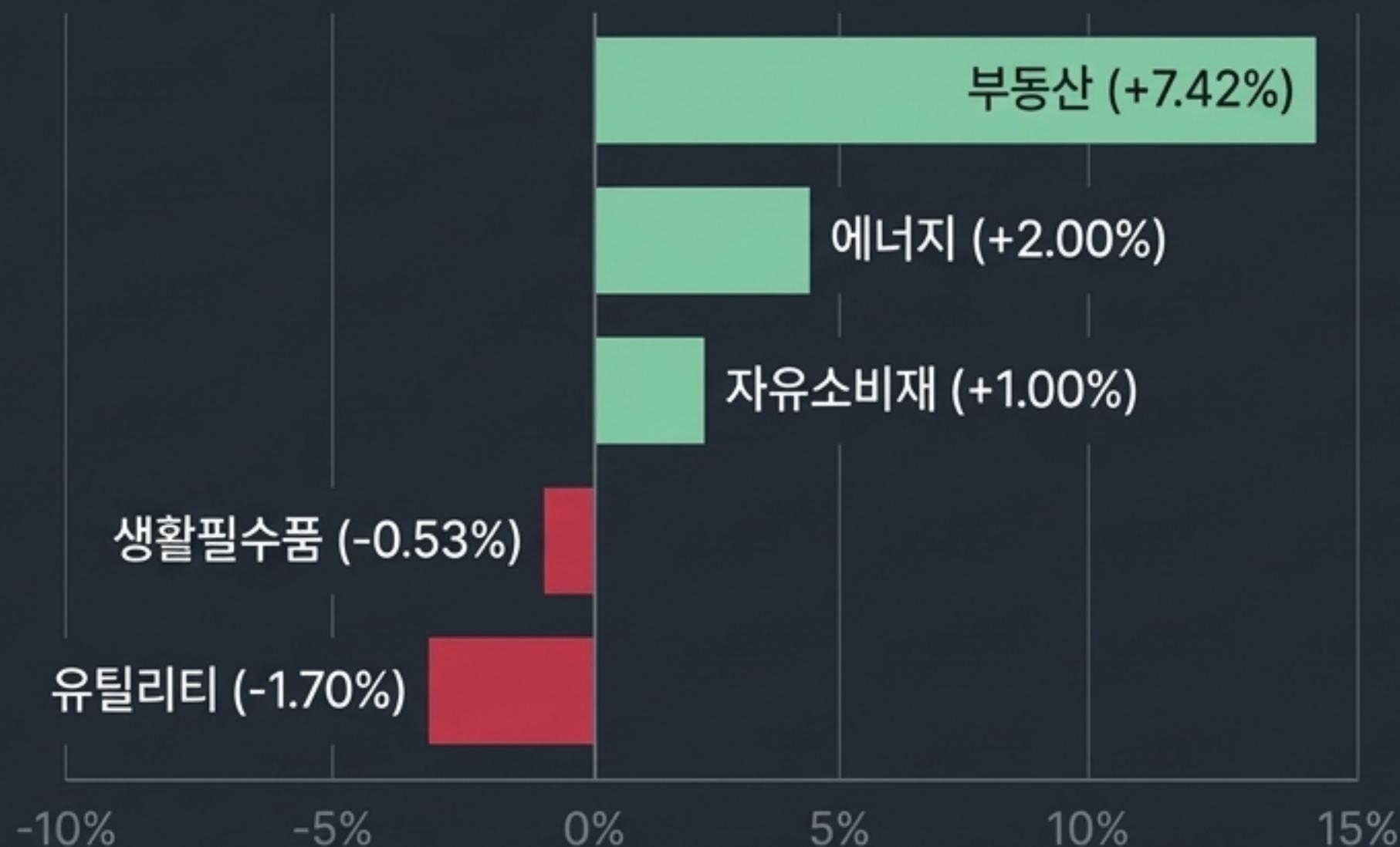
미국 증시 현미경 분석: 악재를 뚫고 오른 뉴욕

Macro Tension (긴장 요인)

- ▶ JP모건, '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이 증시와 가계 덮칠 것' 경고

Micro Momentum (상승 동력)

- ▶ 스페이스X 호실적
- ▶ 나스닥100 조정 틈탄 반도체 3배
레버리지 ETF에 61억 달러 저가 매수 유입
(환헤지 ETF 수익률 10%P 우위 확인)



분석: 인플레이션 헷지(부동산/에너지)와 기술주에
자금이 집중되는 극단적 쏠림 발생

낭떠러지에 선 한국 증시: 5,500선 붕괴 위기



헤드라인

나스닥이 올라도 코스피는 급락...
완전히 따로 노는 한·미 증시

패턴

오르면 내리고, 반등
하루 만에 급락하는
계단식 하락 반복

임계점

코스피 5,5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,
시장 내 '증시안정펀드' 가동 요구
목소리 확산

10대 대장주의 핏빛 하루: 코스피 폭락의 내부 구조

삼성전자
(-4.03%)

SK하이닉스
(-4.64%)

삼성SDI
(-7.04%)

LG화학
(-6.65%)

LG에너지솔루션
(-4.86%)

삼성바이오로직스
(-3.95%)

현대차
(-2.91%)

최악 섹터 (붕괴)

의료정밀 (-5.23%)
제조업 (-5.01%)
보험 (-4.71%)

방어 섹터 (생존)

비금속광물 (+1.17%)
건설업 (+0.01%)
전 업종 하락 속 간신히 선방

수급 붕괴: 외인·기관의 엑소더스와 개인의 고군분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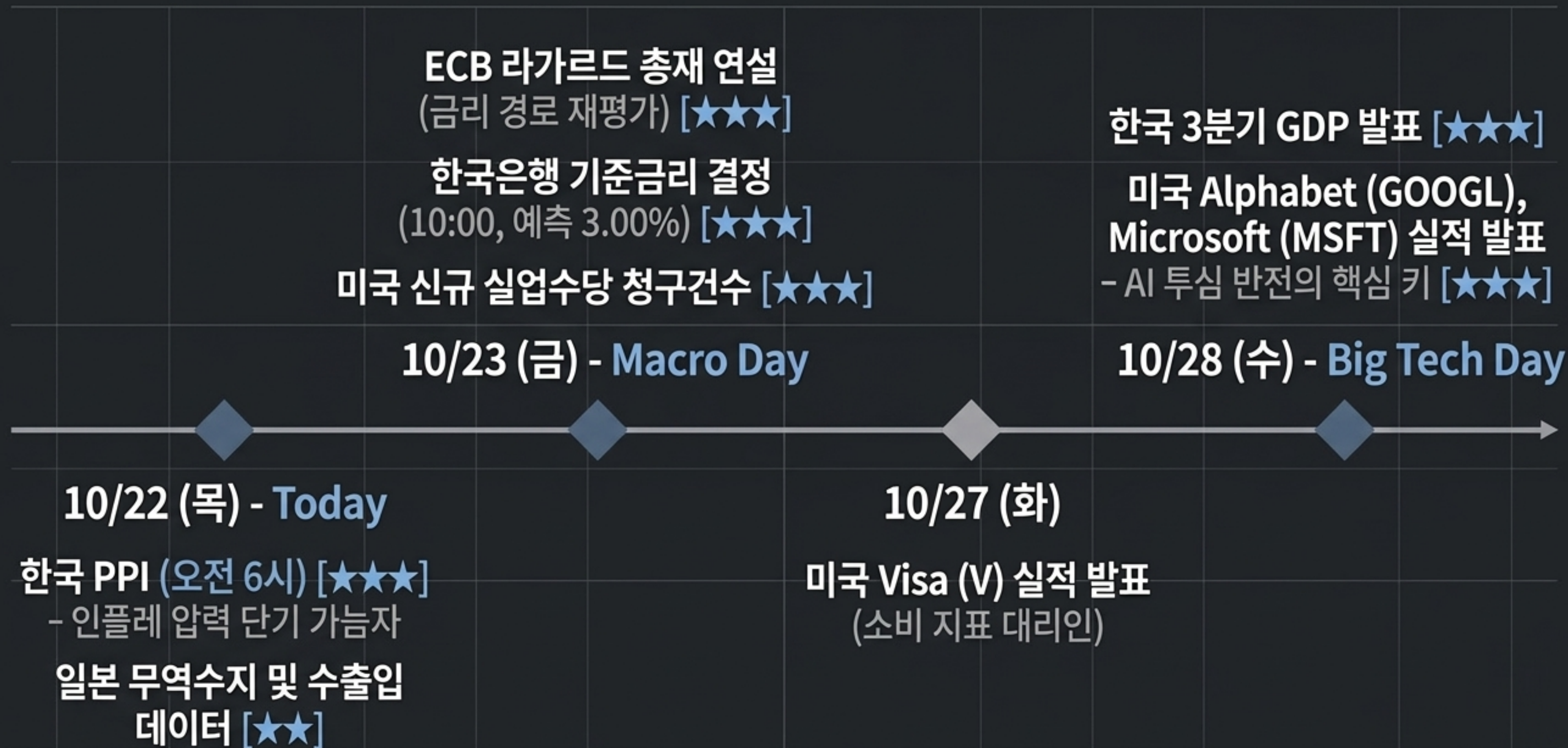
외국인 (이탈)
58.6만 주 순매도
(지수 하락의 핵심 주체)

기관 (동참)
40.1만 주 순매도

개인 (방어)
97.7만 주 순매수

환율 변동성(원/달러 하락)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AI 투자 우려와 디커플링 심화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극대화하며 개인의 낙폭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.

주간 증시 캘린더: 다음 변곡점을 위한 카탈리스트



Actionable Strategy: 폭락장 속의 생존 지침

Phase 1: 방어적 대응 (Defensive Stance)

KOSPI 5,500선 지지 여부 및
증안펀드 가동 신호 확인 전까지
선부른 '물타기(추가 매수)' 지양.

추가 하방 리스크 열어두기.

Phase 2: 매크로 지표 확인 (Macro Check)

단기 방향성은 금일 한국 PPI와
익일 ECB/한국은행 금리 결정에
달려 있음.

글로벌 국채 금리(미 10년물
5%) 경로 재평가가 우선.

Phase 3: 빅테크 이벤트 대기 (Wait for Big Tech)

28일 발표될 MSFT, GOOGL 등
핵심 빅테크 실적을 통한
'AI 조정론' 진화 여부 확인 후
분할 매수(Scale-in) 관점 접근.

**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대분열(Decoupling) 장세입니다.
공격적 베팅보다는 지지선 확인과 매크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.**